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5년 11월 14일(금)
--(윤력 9월 25일)--
Пятница
14 ноября 2025 г.
№ 44 (1216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1월 16일은 전러시아 삼보의 날이다. 사할린주 삼보 및 유도 스포츠학교.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주지사, 한국과 직항 노선 재개 "한국 측 의지에 달려"

지난 11일(수)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지역 주요 언론 편집국장들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리에서 주지사는 연료 공급, 주택, 의료, 도로, 인구 정책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교통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뤘다.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 발생한 긴 대기 행렬과 휘발유 공급, 가격 문제에 대해 주지사는 "섬 내에는 충분한 연료 비축량이 있으며, 현재의 대기 현상은 주로 조직적인 작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업 주유소들의 높은 가격이 소비자들을 국가가 소로 몰리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야장전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주지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반기 동안 연장될 것이라고 밝히며, 주택 가격 상승을 고려한 지원금 인상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구 유입과 젊은 세대 정착을 위한 주정부의 종합적인 노력도 소개되었다. 주지사는 작년과 올해 인구 증가세를 언급하며, 숙련된 전문 인력 유치를 위한 주거 지원, 사할린 국립대

정원 확대 및 장학금 지원, 세계적 수준의 캠퍼스 및 청년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할린을 젊은이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본사 기자는 주지사에게 사할린과 한국 간 직항 항공 노선 재개 문제를 질문했다. 이 문제는 많은 섬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특히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다. 영주귀국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이주한 많은 1세대 사할린 동포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적 정세 등 제3국을 거쳐 가는 것이 매우 불편해서 이미 6년째 사할린 고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역으로 사할린에 남아 있는 자녀들과 친척들도 멀고 먼 길을 쉽게 오갈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는 언제든지 직항편 재개를 준비가 되어 있다"며 "문제는 단 하나, 한국 측이 이를 원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짧고 명확하게 답했다. 그는 "한국 측이 원하지만 하면 우리는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여 재개 의지를 분명히 표했다.

이어 주지사는 사할린에서 한민족지 한글을 유지하는데 대해 감사를 표명하며 사할린 내 한인계 사회와 언론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

는 발언을 했다. 그는 "한국어로 발행되는 신문과 또 다른 한민족 매체가 사할린에 있는 것이 정말 귀중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할린이 한국보다 낫다"고 말하며, "한국의 친지들이 '아브로라' 항공편을 타고 와서 자녀와 손주, 증손주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직접 보고 기쁨을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행복한 모성'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도 많았다. 주지사 따르면 내년에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는 주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외에도 기자회견에서는 지역 내 연료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 젊은 인구 유입 및 정주를 위한 주택 및 캠퍼스 건설 등 인구 증가 정책, 주민들의 의료 및 약품 보장 문제, 도로 정비 및 환경 개선 노력 등 광범위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이 많이 변모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다양한 문제를 분석할 때 '문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배순신 기자)

단신

사할린 외곽 마을에 신규 진료소 3곳 개설

사할린주에서 2025년 의료 시설 역대 최대 규모로 문을 연다. 이미 8개 마을에 신규 소진료소가 설치됐으며, 3개 마을에는 더 큰 규모의 외래진료소가 개장했다. 이 사업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투루프섬의 고르노예 마을에는 150제곱미터 규모의 현대식 진료소가 지어져 400명 주민이 이용한다. 넓은 진료실과 접종실, 대기 공간을 갖췄다. 홈스크 지역 프라우다 마을에서는 신설 진료소에서 이미 진료와 독감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트롭스코예 지역 키로브스코예 마을에서도 외래진료소가 조만간 문을 연다.

신규 진료실과 진료소 외에도 사할린에서는 대형 의료 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올해 말 달네에 마을에 소아 진료소가 문을 열며, 홈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도 진료소 건립이 진행 중이다. 2026년에는 야스노예 마을과 솔로비움카 마을에도 새로운 의료 시설이 들어선다.

사할린, 원주민 지원 새 5개년 계획 마련 중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넵흐, 울타, 에네키, 나나이족) 발전을 위한 5차 지원 계획 수립 회의가 개최됐다. 지역 정부, '사할린 에너지' 기업, 원주민 공동체 대표들이 논의에 참여했다.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부지사는 "이 계획은 언어와 전통, 문화 유산 보존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 원주민들이 사할린에서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섬에는 4,294명의 북방 소수민족 원주민이 거주하며 어업, 순록 방목, 공예 등 전통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2006년 첫 계획 채택 이후 약 20년간 천여 건 이상의 사회, 교육, 문화, 경제 사업이 진행됐다. 2026-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새 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주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 주민 초대

사할린주는 2026-2028년도 지역 예산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11월 19일 오후 2시 주 정부 청사에서 연다.

현장 행사는 OTV-사할린 채널과 주 정부 공식 VKontakte 페이지, RuTube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11월 16일까지 주지사 및 정부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실을 통해 '예산 설명회 참가'로 신청해야 한다. 행사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예산안 관련 정보는 '사할린주 공개 예산' 포털에서 '시민을 위한 예산' 브로슈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새고려신문

2026년 상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반기 구독료는 885,9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할린주와 한반도: 이니셔티브·프로젝트·성과" 국제 학술대회 개최

지난 11월 13일부터 14일 까지 이들 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국제 학술대회 «사할린주와 한반도: 이니셔티브·프로젝트·성과»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사할린주 투자·산업·대외관계부,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대학,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중국 및 현대아시아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컨퍼런스는 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할린이 러시아와 한반도 국가들 사이의 가교로서 갖는 전략적 역할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13일 개막식에서 그루제브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지역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며, 극동 지역에 수만 명의 한인 동포가 거주하고 사할린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다는 점에서 한반도 국가들과의 문명화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은 대회 중 많은 발표자들이 반



복하기도 했다. 사할린국립대학교의 알렉세이 오그네브 부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학과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사이에 형성된 우호적, 파트너십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이번 컨퍼런스의 결과가 학생 교육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한국 문화와 언어가 전 러시아와 전 세계에 확산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 연방의 주한 대사인 게오르기 지노비예프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사를 전했는데 "러시아와 한국 수교 35주년을 맞은 올해,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협력이 매우 유망한 분



야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사할린주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한국과의 특별한 역사, 풍부한 자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과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컨퍼런스 첫날에는 '지역의 투자 매력도: 협력의 지평'과 '지역의 사회·문화 자본: 발전 자원으로서의 유산'이라는 두 개의 주요 세션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웅 박사(러시아 과학아카데미)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러시아 동포의 역사와 정체성, 사할린주와 한국의 경제 협력 과제 및 전망, 극동 지역에서



한-러 수산양식 협력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를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 현안, 박물관과 도서관의 문화 유산 보존 역할, 한국어 교육과 전통 씨름(씨름)을 통한 민족 간 소통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주제들이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부 대표, 교육계 대표, 비즈니스와 사회활동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사할린, 대한민국,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등지에서 온 이들은 사할린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한국에서 온 박종수 더불어민주당 K-유라시아전략위원회 위원장이자 더불어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 위원은 <러시아 및 대한민국 관계의 현황과 전망: 서울의 시각 (외교적 측면)>을 주제로, 정우영 전북대학교 교수는 <한-러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그리고 전략적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박종수 위원장의 경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7년간 지내며 대학에서 정치학을 배워 러시아 말로 발표했다. 얼마전 경제학 준박사를 받은 사할린주 투자·산업·대외관계부 와실리 그루제브 장관의 <사할린주와 대한민국: 현 단계 경제협력의 과제와

전망> 발표도 인상적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학술 교류의 장을 넘어,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화와 직접적 소통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살아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양측에서 협력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역시 사할린-한국 직항 문제가 거론되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에식 기자)

이 모 저 모

2026년 사할린주, 외국인 임시거주 20건 발급

극동연방관구에서 총 245건의 임시거주권이 발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내 임시거주권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러시아 정부는 내년엔 할당될 임시거주권 쿼터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은 이처럼 적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시거주권 발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캄차카 변경주(50건), 연해주(30건)였으며, 사할린주와 하바롭스크 변경주는 각 20건, 추코트카, 마가단주, 부랴찌야 공화국은 각 10건을 발급했다. 극동연방관구의 나머지 지역들(야쿠치아, 유태인자치구, 아무르주, 자바이칼리에 변경주)은 극동연방관구의 잔여 쿼터에 따라 임시거주권을 발급받았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들은 쿼터 할당 외에도 건설 노동자 등 수요가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쿼터 외 임시거주권을 받을 수 있다.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ли 20 разрешений на проживание иностранцев в 2026 году

Всего в ДФО пока выдано 245 таких документов, сообщили в телеграм-канале «Недебри».

Разрешение на временное проживание в Росси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течение трех лет. 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траны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квот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будет очень мало. Правда, вряд ли жители регионов и приезжие ожидали, что настолько.

«Наибольшее число разрешений получил Камчатский край — 50,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 30,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 по 20, Чукотка, Магадан и Бурятия — по 10, а остальные регионы ДФО (Якутия, ЕАО,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Забайкальский край) получили РВП по остаткам общей квоты ДФО», — сообщили в источнике.

Добавим, что иностранные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получить разрешение и за рамками квот — это относится к рабочим строкам и других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вакансий.

Сасалин 특수 군사 작전 가족들, 드론 조종 및 사격 실력 선보여

지난 11월 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가족 단합 대회 '고정밀도의 교환'이 열렸다. 특수 군사 작전에 참여 중인 가

족 일곱이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가했다. 주최측은 가족들을 지원하고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오직 함께여야만 팀워크, 상호 협력, 신뢰 같은 중요한 자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전 대회는 개인전으로 치러져 각자도생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팀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라고 사할린주 특수 군사 작전 참전 용사 협회장 보좌관 엘레나 타라투티나가 전했다.

대회 프로그램은 알차고 다양했다. 참가자들은 집중력, 협동, 상호 도움이 요구되는 두 가지 핵심 단계를 극복해야 했다. 가족들은 드론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는데, 정확한 기동과 제, 경로 통과, 지정 구역에의 착륙을 수행했다. 이 단계는 그들의 민첩성과 반응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현대 기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이 사격 명중률을 겨뤘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팀워크도 중요했다. 부모와 자녀는 함께 결과를 분석하고 전술을 수정하며 성공적인 사격에 함께 기뻐했다.

모든 시험이 끝난 후 각 팀에는 기념품과 상장이 수여되었다. 그러나 참가자들이 스스로 인정했듯, 가장 소중한 상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얻은 생생한 감정, 새로운 인연, 다른 가족들과의 경험 교류, 그리고 단결과 상호 지지의 체험이었다.

"이런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드론을 조종하는 게 가장 재미있었는데, 마치 게임 같지만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느낌이었어요. 사격장에서는 아빠와 제가 똑같이 사격을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라고 참가자 강 타치야나가 전했다.

주최측은 이러한 행사가 정기적으로 열려 가족의 가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Семьи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на Сахалине показали мастерство в управлении дронами и стрельбе

В субботу, 8 но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и семей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Урок высокой точности». Семь семей, чьи близкие участвуют 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перв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ероприят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стремились создать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 совместного отдыха.

«Только вместе можно воспитать такие важные качества, как командная работа, взаимовыручка и дове-

рие. Это мы и хотели передать через наши испытания. Раньш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личном зачете, где каждый был сам за себя. Теперь же все иначе: семьи выступают как команды», — рассказала Елена Таратутина, помощник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ветеранов С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грамма соревнований была насыщенной и разнообразной. Участникам предстояло преодолеть два ключевых этапа, где требовались сосредоточенность, слаженность и взаимопомощь. Семьи учились управлять дронами — выполняли задания на точность маневрирования, прохождение маршрутов и посадку в заданную зону. Этот этап не только проверял их ловкость и реакцию, но и позволял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меткости стрельбы. Здесь важны были не только личные навыки, но и командная работа: родители и дети вместе анализировали результаты, корректировали тактику и радовались успешным выстрелам.

По завершении всех испытаний каждая команда получила памятные призы и дипломы. Однако, как признались сами участники, самая ценная награда — это яркие эмоции от совместного преодоления трудностей, новые знакомства и обмен опытом с другими семьями, а также чувство единства и взаимной поддержки.

«Мы впервые участвовали в подо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Было нелегко, н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Особенно понравилось управлять дроном — это как игра, но с настоящими задачами. А в тире папа и я стреляли наравне, это было здорово», — рассказала Татьяна Кан, участница семей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деются, что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нут регулярными и помогут укрепить семейные ценности.

Сасалин 주 신경망 최다 관심은 55세 이상 이용자들

신경망(인공지능)은 더 이상 '젊은이들의 장난감'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한 러시아인들의 일상에 활발히 들어오고 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55세 이상 시민 사이에서 급증했다. '메가폰'의 익명화된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해당 이용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배 증가했다.

이 통신사 전문가들은 브라우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접근 가능한 인기 신경망(인공지능) 트래픽을 분석했다. 일상이나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전체 이용자 수는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2024년 동기 대비 110% 증가했다.

(8면에 계속)

'브레인 배틀'에서 한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지식 뽐내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10월 16일 사할린에서 한국어경시대회가 열렸다. 이 올림피아드는 '시대와 세월 속 한민족의 살아있는 전통'이라는 주제로 3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 11월 7일(금)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한인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브레인 배틀' 지정 대결 형식으로 경시대회의 3번째 단계가 펼쳐졌다. 경시대회는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학장 임 엘비라)과 사할린한인협회(회장 박순옥)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브레인 배틀'에는 약 100명의 학생과 교사 등이 참가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제2 김나지아, 동양 김나지아, 제1 리체이, 코르사코브 제2 중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 돌린스크 지역 어린이창작회관 등 다양한 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이 포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뽐냈다. 혼합으로 구성된 9개 팀은 창의적인 과제에 이루어진 5개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했다. 이번 지정 대결을 사할린국립대학



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준비했고 행사 진행을 맡았다.

행사 후에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3개 팀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번 한국어 경시대회의 우승자와 입상자들은 오는 11월 21일 열린 외국어 경연 «섬의 경계» 최종 라운드에 출전할 예정이다.

(취재: 드미트리 포구다예브, 배순신)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제4회 '아시아와의 대화' 국제학교 개최



지난 11월 11일 오후 3시 유즈노사할린스크 비즈니스 센터 '아이호르'에서 사할린국립대 주최로 제4회 '아시아와의 대화' 국제학교가 열렸다. 이번 학교에는 사할린국립대학교와 모스크바 소재 국립연구대학교 '고등경제학교'의 학생들과 교수진이 참가한다.

이번 학교의 주제는 '디지털 동양학'이다. 참가자들은 3일간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정보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연구해본다.

'아시아와의 대화'국제학교 기획 책임자인 사할린국립대학교 어문·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학장은 개회식에서 "사할린 지역의 중요한 5개 분야 -수소 에너지, 관광, 통신(물류), 스포츠, 디아스포라 - 를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고등경제학교의 동양학 교육 과정 지도 교수인 울리야나 스트리자크는 환영사에서 "우리는 텍스트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현대적 동양학 전문가의 새로운 유형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간의 작업은 11월 14일(금) 전문가 앞에서 연구 결과로 발표될 예정이다.

(본사 기자)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 계열 175명이며 그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덕선

관리번호	953873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성명	김덕재	한자	金德在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1870)	사망년월일	미상
본적	강원도 통천		

공훈록

김덕재는 대한제국 때 육군 보병 정위를 지냈으며, 1900년경 러시아의 남부 우수리 노우키에프스코예로 이주하여 이범윤(李範允)의 휘하에서 국권회복, 항일독립운동을 하였다. 1919년 2월 동지에서 2회에 걸쳐 반일사상을 고취하는 강연을 하였다.

1920년경 러시아 노우키에프스코에서 모일세이 황(黃) 등과 함께 움스크정부의 징병에 응하지 말고 친일파를 배척하고 처단하며, 한국독립운동 종사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병기탄약의 매매 운수, 군자금 조달, 의병 모집 등에 진력해야 한다는 등의 러시아 거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방법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鮮人の行動에 關한 件(1920. 2. 1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部-在시베리아(9)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x ix 日本篇(6) 274~276면

묘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사할린 동포법" 개정안 조속통과 촉구 기자회견

지난 11월 12일(수) 한국시간 오전 11시 국회의원 양문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사할린 한인협회는 양문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제2210637호)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 인무학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부회장, 이수진 남양주시 사할린동포회 회장 (사할린 한인협회 대리), 주훈준 안산시 상록구 대한 노인회 지회 고향마을 영주귀국자 노인회장, 조경제 안산시 상록구 대한 노인회 지회 고향마을 영주귀국자 노인회 고문, 박정자 김포시 솔터마을 2단지 사할린 동포회 회장, 전준호 전 안산시의회의장과 최상구 KIN(지구촌동포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양문석 의원은 참석자 소개에 이어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모국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모국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소외감 등 근대사를 관통하는 비극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이어 사회를 맡은 전준호 전의장은 우리 동포들이 고국에 와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 통과를 거듭 호소하였다.

다음 발언에 나선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은 "한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함께 자란 형제자매가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픔을 보듬어주기를 바라며, 늘 마음이 편치 않아 부모 사망 2세도 차별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가 될때마다 이야기 했다. 이미 고향의 이들을 위해 법개정이 신속히 되도록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수진 남양주시 사할린동포회 회장(사할린 한인협회 대리)은 사할린동포들의 입장문을 낭독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 참석자들은 이미 고향에 이른 동포들이 하루빨리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포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하며 또한 사할린 동포에게 평등한 영주귀국 기회를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책무인 사할린 동포의 귀환을 완수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본사 기자)

(사진: 기자회견 주최측 제공)

편집부로부터: 아래에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와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입장문 게재.

<사할린 동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께

우리는 사할린에서 조국을 그리며 살아온 사할린 한인협회와 이미 고국으로 돌아와 이 땅에 정착한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 연합회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지난 80년간 조국을 향한 그리움과 한(恨)을 품고 살아온 수많은 동포들의 절규를 대신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을 때, 이 법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를 치유하고 고향을 잃은 이들의 한을 풀어줄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품고 있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인해 또 다른 상처가 깊어지고 있음을 목도하며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할린에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은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았는데, 그들의 자녀들까지 버림받아야 하나요?"

현행법의 가장 큰 맹점은 '동반가족'이라는 제한적인 개념입니다. '사할린 동포' 본인이 생존해야만 그 배우자와 자녀가 귀국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자녀와 홀로 된 배우자들은 또다시 외면받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고국 귀환의 꿈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44년생 형은 귀국했지만 46년생 동생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비극적 사례는 모든 사할린 동

포 가정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가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처사입니까?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적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할린 동포법의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사할린 동포가 사망한 2세 동포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사할린 동포들의 한을 풀어주고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조국이 우리를 잊지 않았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고국으로의 귀환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입니다. '동반가족'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번 <사할린 동포법>개정안은 사할린 동포 지원의 최대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역사적 책무를 온전히 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국회가 사할린 동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들의 마지막 귀국길을 따뜻하게 열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들을 외면하는 것은 이들의 부모님, 나아가 대한민국 역사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1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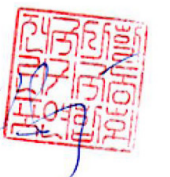


사할린 한인협회

회장 박순옥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 권경석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ямое авиасообщение с Кореей зависит о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ю для главных редакторов региональных СМИ, в ходе которой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о топливной ситуации, ЖКХ, демографии и других актуальных темах.

От редакции нашей газеты был задан вопрос о возобновлении прямого авиасообщения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Эта проблема особенно остро стоит для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1-ое поколение), уехавших в Корею по программе ПМЖ.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из-за пандемии и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не могут посетить остров уже шестой год.

«Мы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товы к запуску рейсов. Вопрос только в одном: если Южная Корея захочет, то мы начнем это», — заявил губернатор, подчеркнув готовность региона к диалогу.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поблагодарил корейские СМИ Сахалина за работу, отметив, что сохранение газе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большая редкость и очень ценное дело».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что корейские родственники сахалинцев смогут прилететь на остров и лично увидеть, как здесь живут их семьи.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также были затронуты темы стабилизации цен на бензин, программ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ых семей и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модернизац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дорож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Виктория Бя

«Брейн баттл»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рошё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7 ноября 2025 года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ся третий этап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Живые традиции народа в пространстве времён и эпох» в увлекательном формате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игры «Брейн баттл».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Институтом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хГУ)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Перед началом игры прошло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первого (письменного) этапа Олимпиады.

В «Брейн баттл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школьник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з различ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имназия № 2, Восточная гимназия и Лицей № 1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редняя школа № 2 города Корсакова, а также Детская школа искусств «Этнос»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Дом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г. Долинск).

В финальной части олимпиады участни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печатляющие знания об объектах нематери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в Южной Корее. Для девяти сборных (смешанных) команд было подготовлено пять этапов с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творческими заданиями. Участникам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дать ответ на непростые вопросы менее чем за 30 секунд.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задания для «Брейн баттла»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студентами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которые



подшли к делу творчески, а также выступили в роли ведущих и ответственных за столы.

По завершении игры состоялось подведение итогов и награждение команд, показавших наилучшие результаты.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ёры письменного этапа Олимпиады п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получили право участвовать в финальном туре конкурса на зна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Островной рубеж», который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21 ноября.

Дмитрий Погудав

В СахГУ проходит 4-я Международн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11 ноября в бизнес-центре «Айхор»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четверт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школы «Диалог с Азией». Мероприятие, которое уже стало доброй традицией, собрало студент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ысшая школа экономики» (Москва).

Приветствуя участник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школы, проректор СахГУ Николай Хурчак отметил актуальность цифровизации в нынешнее время и пожелал успехов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новых знаний.

В этом году работа школы посвящена одной из самых актуальных тем — «Цифров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Участники за три дня попробуют себя в роли современ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 методы анализа больших данных для работы с информацией на корей-

ском, японском и китайском языках.

Как отметила во время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школа «Диалог с Азией»,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Эльвира Лим, работа будет вестись по пяти приоритетным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правлениям: энергетика, туризм, связь, спорт и диаспора.

«Мы с вами будем создавать новый тип современн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востоковеда, который умеет работать не только с текстами, но и с данными», — подчеркнула в своем приветственном слове академическ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НИУ ВШЭ Ульяна Стрижак.

Итогом интенсивной трехдневной работы станут презентации результатов исследований, которые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ят 14 ноября.

Наш корр.

К 80-летию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четырнадцатое письмо с комментариями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исьма с Сахалина: забытый голос предков»

Редколлегия

Моему дорогому мужу на Сахалине!

Дорогой! Говорят, жизнь скоротечна, но 34 года, которые я провела в ожидании тебя, отняли у меня жизнь, и теперь я стала совсем седой.

Больше чем принятие женской судьбы, называемой ёнпильчонбу (女必從夫) (1), я по настоящему уважала тебя больше всего на свете, и я родила дочь, которую ты оставил, и заботливо воспитала ее, ожидая тебя всей со своей верностью.

Это ты, когда я слышу шум ветра? Это ты, когда я слышу лай собаки? Когда перед нашей деревней появляется машина, я задаюсь вопросом, не ты ли вернулся домой со славой. Но ночью я вздыхаю и переворачиваюсь, прижимая к себе свою маленькую дочь Кым Сон (금선), которую ты оставил, и тайно рыдаю. Так прошли более 30 лет...

Теперь, когда слезы и печаль высохли, забываемой болью в моей жизни стал вопрос, который задавала мне наша маленькая дочь Кым Сон, когда росла: «Куда делся наш папа?» И хотя я отвечала ей, что папа скоро придет, мне было больно от того, что я не могла сдержать свою тоску и скрыть слезы, держа за руку нашу нежную, как листки папоротника, дочь.

Ты уехал из дома в первый месяц после свадьбы, сказав, что скоро вернешься. Однако даж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наша страна была освобождена и стала независимой, очень долго не было никаких новостей, но под каким бы небом ты не был, я надеялась, что ты жив и здоров.

14 апреля 1973 года, когда я получила твоё письмо через Обще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скорейшей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2), в котором сообщалось, что ты жив, вся наша семья и взрослые в нашей деревне не смогли сдержать слез.

Дорогой! Теперь, когда я услышала вести от тебя, я ни о чем не сожалею, даже если умру. Пожалуйста, будь здоров и живи долго. Я напишу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 здешних новостях.

После твоего отъезда о твоей дочери и обо мне заботился твой младший брат Юн Нам Вон (윤남원), но теперь мы счастливо живем с твоей матерью и внуками в вашем старом доме в Посон Квангоке (보성광곡) (3), который мы прекрас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ли, и занимаем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Отец умер 6 лет назад, а мать все еще жива, в этом году ей 85 лет.

У Юн Нам Вона также трое сыновей и трое дочерей, он занимает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и живет комфортной жизнью около твоего старого дома в четырехкомнатном доме, которую планируют покрыть черепицей. Твоя дочь Кым Сон окончила среднюю школу для девочек в Посоне, выросла и вышла замуж за представителя семьи Чанхын Чон (장흥정씨) (4). У нее двое сыновей и три дочер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на живет в Сунчхоне (순천) со своим муж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служащим.

После того, как ты уехал, машины стали приезжать прямо в нашу деревню, и везде проведено электричество.

В сельской местности началось движение «Новая деревня», в ходе которого на крышах каждого дома была уложена черепица, дороги расширены, и жизнь стала лучше. Те-

перь, когда у нашей семьи появилось немного денег, я стала думать о тебе еще больше. 8 апреля я вместе с женой Нам Вона поехала в дом дочери в Сунчхоне. Рано утром мы совершили омовение и отправились в храм Сонгванса (송광사) (5) в Сунчхоне, где вся семья совершила молитву в буддийском храме, и помолились за твою долгую жизнь и здоровье.

Дорогой! Наступила весна, но погода нестабильная. Какая весна на Сахалине? Берегите себя.

И, пожалуйста, присылай мне письма и фотографии почащ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активно продвигает движение по поиску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на межкорейских переговорах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6), поэтому я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у того дня, когда наша семья сможет собраться вместе, поделиться старыми историями и жить долго и счастливо.

Дорогой! Желаю здоровья. Я прожила без тебя 30 лет и буду ждать еще 30 лет. Где бы ты ни находился, береги себя и будь здоров. Это единственное желание нашей семьи. Пока мы не встретимся снова, обязательно береги себ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Чолла-Намдо, Посон-гун, Нодон-мён, Квангок-ри (전남 보성군 노동면 광곡리) Твоя жена, Пак Ха Ним (박하님) Перевод: Ин Му Хак

Комментарии:

(1) Ёнпильчонбу – корейское выражение, которое означает одну из главных женских добродетелей согласно конфуцианской традиции, – покорное следование жены за мужем в любых обстоятельствах.

(2) Общество содействия скорейшей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возникла в Южной Корее уже в 1945 г. и боролась за возвращение корейцев с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осле войны.

(3) Деревня Квангок района Посон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

(4)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в Корее издревле было не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фамилий, которые часто совпадали (например, наибол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фамилии Пак и Ли), для идентификации фамилию называют вместе с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привязкой, что переводится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как «Семья (клан) Чон из Чанхын». Чоны из Чанхына – семья, происходящая из района Чанхын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 Основателем ее является Чон Ын Бун, занимавший пост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в период Чосон (сдал экзаммен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службу в 1583 и 1606 г.).

(5) Сонгванса (храм развесистых сосен) – буддийский храм в провинции Южная Чолла. Построен в 867 г., в 1190 г. был перестроен. На территории храма располагаются три павильона Тэунбочжон, Чичжанчжон со статуей Будды и Синбочжон. Одной из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храма является большая деревянная чаша для риса.

(6) Именно организаци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митет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занималась и занимается проблемой репатри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иссия эт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 предоставлять защиту и помощь пострадавшим в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ах и внутренних беспорядках.

Подготовка и комментарии: Юлия Дин, к.и.н.,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поздравил киберспортивную команду T1 с победой

10 ноя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поздравил южнокорейскую киберспортивную команду T1 с третьей подряд победой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League of Legends (LoL). В своём аккаунте в социальной сети Facebook он назвал данный успех «выдающимся достижением, которое войдёт в историю киберспорта». 9 ноября в китайском Чэнду команда T1 в третий раз подряд стала чемпионом по LoL. Это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в истории киберспорта. Ли Чжэ Мён заявил, что команда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мощь РК как «киберспортивного гиган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развитие игровой индустрии, включая киберспорт,-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Итоги саммита АТЭС отвеч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74% южнокорейцев считают, что итоги прошедшего недавно саммита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АТЭС) отвечают национальным интересам. Лишь 13% опрошенных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Таковы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1.002 взрослых южнокорейцев, проведённого с 4 по 6 ноября агентством Gallup Korea.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 том, какая из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наиболее важна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71% респондентов назвали США, 16% - Китай. 2% - Японию и 1% - Россию. 9% респондентов затруднились с ответом. В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о том, какая страна наиболее важна дл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67% респондентов выбрали США, 22% - Китай, по 1% - Японию и Россию.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3,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РК отправила спецпосланника в Анголу

Ветеран южно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и Ким Дон Чхан отправился 10 ноября в Анголу в качестве специального посланника президент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К для участия в торжествах по случаю 50-лети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стран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м ведомстве, Ким Дон Чхан, ранее работавший послом в Анголе, передаст личное письмо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Чо Хёна президенту Анголы Жоау Лоренсу.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РК и Ангола активизируют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частност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получили от Анголы заказ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ескольких нефтяных танкеров.

Песни APT. и Golden номинированы на премию «Грэмми»

Две песни K-POP - APT. певицы Rose из женской группы BLACKPINK, исполненная совместно с Бруно Марсом, и Golden из оригинального саундтрека к анимационному фильму Netflix под названием K-Pop Demon Hunters (Кей-поп-охотницы на демонов) - номинированы на премию «Грэмми» в нескольких категориях. Как сообщила 9 ноября Национальная академия искусства и науки звукозаписи (NARAS), песня APT. номинирована на награды «Песня года», «Запись года» и «Лучшее поп-исполнение дуэтом/группой». Песня Golden претендует на награды «Песня года», «Лучшее поп-исполнение дуэтом/группой», «Лучшая песня, написанная для визуальных медиа» и «Лучшая ремикс-запись». Звуковая дорожка к фильму K-Pop Demon Hunters (Кейпоп-охотницы на демонов) номинирована на награду «Лучший саундтрек-компиляция для визуальных медиа». Вручение наград состоится 1 февраля 2026 года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Crypto.com Arena в Лос-Анджелесе.

Хакеры нанесли ущерб пользователям ПК и смартфонов

Хакерская группа, связанная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запустила новую форму кибератаки, которая удаляет важные данные с персональных компьютеров (ПК) и смартфонов на Android. Согласно отчёту об анализе угроз, опубликованному 10 ноября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омпанией Genians,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ью, злоумышленники вышли за рамки кражи личной информации, нане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й ущерб обычным пользователям. Так, 5 сентября хакеры удалённо сбросили настройки смартфона, принадлежащего специалисту по работе с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беженцами. Украденный аккаунт в KakaoTalk затем использовался дл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редоносного файла, замаскированного под «программу для снятия стресса», среди беженцев и их контактов. 15 сентября аналогичная атак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смартфон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озащитника,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вредоносный файл через украденный аккаунт в KakaoTalk был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зослан 36 контактам. Сочетание удаления данных 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редоносного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через учётную запис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чт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хакеры достигли уровня, способного нанести ощутимый ущерб.

RKI

Экс-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Юн Сок Ёль официально обвинен в измене

Следственная группа спецпрокурора Южной Кореи завершила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делу о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внешней угрозе и передала материалы в суд. Обвинения предъявлены бывшему президенту Юн Сок Ёлю, экс-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Ким Ён Хёну, бывшему главе военной контрразведки Ё Ин Хёну и командующему дронным командованием Ким Ён Дэ. Все они обвиняются в измене, злоупотреблении властью и препятствовании исполнению служеб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Провокация ради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По данным следствия, обвиняемые осенью прошлого года организовали провокационный полет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направлении Пхеньяна, чтобы искусственно создать военную напряженность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ее как предлог для введения в стране воен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ходе операции один из дронов потерпел крушение,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произошла утечка во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и рост напряж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Как установила следственная группа, указание на проведение операции исходило от высше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а планирование и реализация велись при участии ближайших соратников бывшего президента. В распоряжении прокуратуры оказались записи и заметки военных чинов,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щие о намерении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объявления чрезвычай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 частности, в телефоне бывшего главы контрразведки Ё Ин Хёна были найдены записи с выражениями вроде "нужно поймать момент нестабильности" и "минимум - кризис безопасности, максимум - потоп Ноя".

Тяжкие обвинения

Юн и его соратники обвинены в так называемой общей измене, что, согласн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у РК, в отличие от "госизмены" не подразумевает прямой сговор с врагом. Тем не менее статья об "общей измене" также

относится к категории тяжких преступлений против государства. О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аказание вплоть до пожизнен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если доказано, что действия обвиняемого нанесли ущерб во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траны, даже без прямого сговора с противником.

Спецпрокурор Чо Ын Сок заявил, что действия обвиняемых "сознательно ослабили военные интерес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оставили под угрозу безопасность граждан. По его словам, следстви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в максимально сдержанном объеме, чтобы избежать политизации процесса, и охватило только тех, кто осознавал истинную цель операции.

Юн Сок Ёль во время допросов в основном пользовался правом не давать показания, однако отрицал вину и настаивал, что речь шла о "военно-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м наблюдении", не имевшем политических мотивов.

Политический и правовой резонанс

Это дело уже называют одним из самых громких в истор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юстиции: впервые в современной практике бывшему президенту инкриминируется преступление уровн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измены. Процесс обещает стать испытанием для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страны, где не раз осуждали бывших лидеров, но ни один из них не сталкивался с подобным обвинением.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блюдатели отмечают, что обвинения против Юна и его окружения ставят под сомнение законность целого ряда решений, принятых в последние месяцы его правления, особенно в сфере обороны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то же время спецпрокуратур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расследование по линии "внешней угрозы" завершено, а теперь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сосредоточено на втором эпизоде - возможной подготовке внутреннего переворота или мятеж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В Южной Корее вспомнили о российском следе в успехах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 в издании "Ачжу Ньюс" - появилась статья, вызвавшая заметный интерес в экспертной среде. Ее автор - Пак Пен Хван, бывший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й дипломат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эксперт по России и нынешний глава Института евразийски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 утверждает, что нынешние успехи Южной Кореи в сфере вооружений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обязаны России. В материале, озаглавленном "К-оборонка" и вклад России",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ется, как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1990-х и 2000-х годах, включая знаменитый "проект Бульгом" и создание ракеты KSLV-1 "Наро", стало фундаментом для сегодняшнего "чуда K-Defense", о котором многие говорят сейчас.

От самодостаточной обороны к глобальным амбициям

Поводом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стала недавняя речь президента Ли Чжэ Мёна на оборонном форуме в Кояне, где он объявил о намерении вывести Южную Корею к 2030 году на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мире по объему оборонных и аэрокосмических производств. По данным SIPRI, страна уже занимает 10-е место, а доля корейского оружия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выросла с 1% до 2,8%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 фоне этих успехов автор статьи подчеркивает: за "взлетом K-Defense" стоит не только труд корейских инженеров, но и "внешние стимулы" - прежде всег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полученное от России.

"Проект Пульгом": российские танки, которые изменили Корею

В статье подробно разбирается программа "Пульгом" (Бурый медведь) - форма погашения долгов России перед Южной Кореей,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й в середине 1990-х годов

Москва поставила Сеулу современное вооружение.

В первой фазе проекта (1995-1998) Корея получила танки Т-80U, БМП-3, ПТРК "Метис" и ПЗРК "Игла". Эти образцы стали лабораторией для будущих разработок - например,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система зарядки и газотурбинный двигатель Т-80 легли в основу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танка К2 "Черная пантера" и самоходной гаубицы К9.

Во второй фазе (2002-2006) поступили десантные суда на воздушной подушке "Мурена", вертолеты Ка-32 и Ансат, самолет Ил-103, а такж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документация, позволившие изучить принципы авиационной электроники. На базе этих знаний позже появились истребитель KF-21 "Пораме", ЗРК "Чхонгун" (KM-SAM) и ПТРК "Хёнгун".

Автор отмечает: мало кто осознает, что опыт эксплуат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систем стал для Сеула настоящи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 трамплином, позволив перейти от "сборки по лицензии" к созданию собственных платформ.

Корейский космос: от "Наро" до "Нури"

Отдельный раздел статьи посвящен совместному проекту "Наро" (KSLV-1), реализованному в 2004-2013 годах. Россия предоставила первую ступень ракеты, двигатель и систему управления, а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нженеры получили доступ к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и лич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борке и запуске.

Автор напоминает: в то время США отказались помогать Сеулу, считая косм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избыточной", а Россия - единственная из развитых стран - согласилась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Этот опыт позволил Корее создать космодром и затем уже полностью национальный носитель "Нури" (KSLV-2),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успешно выводит спутники на орбиту.

(Окончание на странице 7)

В буддийские храмы заглянула романтика

Сеул, 8 ноября – ИА РУСКОР. Более 1000 одиноких южнокорейцев, в основном в возрасте от 40 лет,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знакомств, проводимой буддийским фондом. Корейский буддийский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сообщил, что 1012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от 30 до 40 лет подали заявки на участие в двухдневной программ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анын Чолло» («Я иду в храм»),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15–16 ноября в храме Судокса в уезде Есан, провинция Южная Чхунчхон. Программа по подбору пар, запущенная в 2013 году для

популяризации института брака, ограничивает участие в ней людьми в возрасте от 35 до 49 лет, чтобы отразить тенденцию к более позднему вступлению в брак в Южной Кореи. Из заявившихся 390 были мужчинами, а 622 — женщинами. Для участия были отобраны только 10 мужчин и 10 женщин. Во время отдельной двухдневной встречи, состоявшейся накануне в храме Чиджиса в Кимчхоне, провинция Северная Кёнсан, шесть пар из 24 участников проявили романтический интерес друг к другу.

Транспортная доступность, состояние жилфонда и вопросы медицины: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стретился с жителями Шикотана

В рамках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Южно-Куриль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две встречи с жителями. В частности, в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он ответил на вопросы жителей Шикотана. Более всего их волнуют темы воздушного и морского сообщения, состояния жилищного фонда и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Михаил Дудаев проживает на Шикотане 40 лет. Мужчина поделился, что местным жителям сложно планировать поездки из-за отсутствия билетов на теплоходы. Между островами курсируют сразу три судна, однако купить билеты можно только за месяц-два. А распродаются билеты всего з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 Благодаря вашей настойчивости курсируют д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теплохода. Но второй год я выезжаю в отпуск, а обратно не могу добраться. Билетов не хватает и все. Можно ли для курильчан открывать продажи за год вперед? Расписание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едь известно, - отметил курильчанин.

Министр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пояснил, что билет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ыкупаются за считанные часы. Но для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держат определенный запас, формируют лист ожидания совместно с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района,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первоочередное право покупки курильчанам.

- Вопрос нужно решить сейчас. Нужно сделать так, чтобы местные жители не испытывали неудобств при покупке билетов. Прорабатывайте вопрос. Курильчане должн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купить билеты хотя бы за полгода до предполагаемой даты отпуска. Открывайте продажи раньше. Это касается и жителей Итуруп, и Шикотана, и Кунашира, - по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интрансу и мэр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Также с 1 января с област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цифрового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будет запущен сервис по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ым тарифам, через который жители Куриль смогут покупать билеты по льготной цене.

Еще один вопрос касался льготных авиаперелетов.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место талонов от соцзащиты жителям будут сразу выдавать именную билет. Ранее островитянам приходилось проходить долгий путь оформления документов через авиакасса. Подобное решение уже принято в Охинском районе. Практику расширят и на Шикотан.

Следующий блок вопросов посвятили тем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Мама 10-месячного малыша пожаловалась на сложности со сдачей анализа крови. По ее словам, аппарат регулярно ломается, а женщине нужно оформлять документы для зачисления ребенка в детский сад.

- Полгода не берут кровь из пальца. Как ребенку сдать анализ? Постоянно что-то ломается, когда уже это закончится? - спросила девушка.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пояснил, что аппарат сегодня работает. Анализ ребенку проведут сразу, как мама и малыш будут готовы. Ране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а поломка. В это время анализы отправляли на проверку в Южно-Курильск, что и приводило к задержкам. Для биохим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крови на остров привезут еще один аппарат, на случай поломо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 Шикотане. Как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в Малокурильске с 1 декабря впервые заработает своя скорая помощь. В местной больнице установят новый лифт в уже существующей шахте. Также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в лечеб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оступит техника для снятия кардиограммы.

Также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состояние жилого фонда.

- Когда идет дождь, вода из-под крана течет грязная. О проблеме известно уже много лет. Когда это исправят? - по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местная жительниц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ообщили, что сейчас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техническ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по установке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фильтров на всех водозаборах. В 2026 году совместно с региональ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ом ЖКХ приступят к монтажу оборудования. Сейчас при поступлении жалоб специалисты проводят промывку систем.

Еще две курильчанки рассказали о проблемах с балконами и крышами по разным адресам. По их словам, с каждым циклоном ситуация все больше ухудшается, а временные решения от управляющих компаний не помогают.

- Берем в работу. Даю поручение мэру на этой неделе посмотреть, в чем проблема и все исправить. Мы с этим мириться не будем. Сделать надо все до наступления зимы. Немедленно привести все в порядок, - поручил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отрудник местной лесной охраны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проблемы свалки. Она переполнена.

- 20 лет уже борюсь со свалкой. Когда уже ее закроют или перенесут в другое место? - сказал курильчани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идет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мусоросжигательного завода в Южно-Курильск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на 2029 год. Когда завод будет запущен,

мусор с Шикотана будут вывозить на Кунашир. А пока будет решаться вопрос о расширении существующего полигона.

Внимание обратили и на расчистку рек.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на улице Луговой, работы проведут в первоочередном порядке. Здешние жители пожаловались на выход воды из берегов и подтопление домов. Так как местность болотистая, работы начнутся с первыми заморозками.

Наконец, жители Шикотана обратились с просьбой усилить контроль за содержанием дорог. В межсезонье проезжие участки приходят в негодность, появляются кочки и ямы.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ручил мэри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а собирать обратную связь от жителей и подсыпать дороги при получении сигналов. Мэр района Павел Гомилевский сообщил, что грейдеры ходят регулярно. Дорогу чистят, проблемные участки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по возможности. Осенью и весной будут производить отсыпку инертным материалом.

- Когда я приехал на Шикотан 7 лет назад, асфальта не было вообще. Сегодня центральные дороги в твердом исполнении. Эту работу мы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и дальше, - подытож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жители задавали и частные вопросы. По ним решения приняты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Все они переданы на контроль профильных ведомств.

Губернатор провел встречу с активом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судил будущее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с ребятами, которы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получили ключи от комнат в общежитии. Они рассказали главе региона о первых впечатлениях и высказали свои пожелания к условиям проживания.

Встреча со студенческим активом состоялась в минувшее воскресенье. В этот день в обустроенн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ампуса спортзале состоялись соревнования. Также губернатор в торжественной обстановке вручил ключи от комнат еще 50 ребятам.

— Я был таким же, как вы, - студентом, который приехал поступать в университет. Также получил место в общежитии, и помню всех ребят, с кем жил в одной комнате. С некоторыми из них дружу до сих пор.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 найти соратников и вместе идти по жизни. Поддерживайте друг друга.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мы создадим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чтобы вам было комфортно жить и учиться. Вы - наша смена, будуще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 - обратился с напу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ехническое заселение общежития СахалинТех началось с 5 ноября. Перед ребятами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задача - оценить удобство и практичность места проживания. О своих замечаниях к обустройству быта они рассказали губернатору. После общения ребят с главой региона в здании появились Wi-Fi, в комнатах - зеркала, а стены в коридорах общежития украсят полотн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живописцев.

— Хочу спросить: у вас есть ощущение уюта? Чувствуете ли вы себя как дома? - спрос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Конечно! Все условия созданы. Мы видим, как много делается для молодежи. Когда ощущаешь такую заботу, укрепляется желание строить будущее здесь, на Сахалине! - отметил один из студент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лючи от комнат получили 100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живать на 8 и 9 этажах одного из корпусов общежития. Ребята будут проживать в секциях на две комнаты. Каждая рассчитана всего на двух человек. Также блок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санузел, душевую и кухню-нишу.

До конца этого месяца в здании заработают медицинский блок, прачечная самообслуживания, комната досуга и отдыха.

Всего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рассчитан на 1500 мест. Он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корпус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селяться поэтапно. После полного ввод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студенческого городка,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закроет потребность в местах проживания для иногородних студентов, а также науч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и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Современный студгородок станет частью кампуса СахалинТех, который создается в регион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РФ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овременный вуз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для наиболе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отраслей островной экономики. Сейчас в центр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озводится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кампуса.

79 фильмов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Сахалину и Курильским островам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абсолютным лидером по числу видеоработ, допущенных к участию в третьем сезоне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Всего представлено 79 видеоработ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три из которых претендуют

на специальную номинацию «Тропами Победы».

Участники совершили походы разной категории сложности: восхождения в горы, покорение вулканов, сплавы по рекам, погружение под воду. Конкурс завершится 15 января 2026 года, ч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ать и фильмы о зимних путешествиях.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ретий сезон подряд удерживает лидирующие позиции по количеству видеоработ, поданных на конкурс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Для нас это показатель интереса к региону как среди туристов, так и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стремятся поделиться видами островов,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 красоту родного края. Также ценно,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оявилась спецноминация «Тропами Победы»,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туристы могут пройт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м маршрутом и рассказать об этом. А это уже нечто большее, чем просто природные локации - это 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о подвигах наших героев, о местах, где шли боевые сражения. С появлением данной номинации конкурс приобрел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глубину смысл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наша земля, наполненная историей героизма,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министр туризм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ем Лазарев.

Специальная номинация «Тропами Победы» введена в рамках третьего сезона конкурс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я Трутнева. Он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историк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туризма посредством видеорепортажей участников о походах по местам боевой слав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в видеоработах о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делено острову Шумшу, где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точка в событиях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стров стал ключевым объектом внимания для многих авторов материалов спецноминации.

Заявки на конкурс «Дальний Восток - Земля приключений»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января 2026 года включительно. Участники должны представить короткие фильмы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ю до восьми минут о путешествиях по территор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Гран-при конкурса - денежный приз в размере трех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я Трутнева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ппарата полномочн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ласти и автозаправочные сети ищут решения по повышению эффективности работы АЗС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оперативный штаб по топливообеспечению, задача которого следить за ритмичностью поставок горючего на АЗС и эффективностью их работы. При наличии достаточных запасов топлива на складах на ряде 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й отмечаются случаи чрезмерного ожидания в очереди.

- Участились обращения от людей по поводу очередей на заправках. Необходимо совместно с игроками топливного рынка найти решения по повышению пропускной способности АЗС, оценить, как минимизировать время ожидания на станциях,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егод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зданы достаточные запасы топлива - от двух недель до месяц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вида горючего. Танкеры стабильно приходят из Находки в Корсаков три-четыре раза в месяц, ближайший - ожидается 15 ноября.

- Количество топлива полностью покрывает потребность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 Поставки налажены, оптовые емкости заполнены. Сложности возникают из-за ажиотажа на сетевых заправках «Независимой нефтегазовой компании». В результате, бензин заканчивается раньше. Приходит новая цистерна, а каждый слив по технологии должен отстояться два часа, на это время станция закрывается,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Римша.

Министр энерге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митрий Куварин добавил, что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будут оптимизированы два процесса.

- Первое - необходимо уменьшить время на заправку одного автомобиля и предусмотре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техн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на АЗС. Второе - сократить простоя заправочных станций с пополнением хранилищ. Две задачи будут решаться региональны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овместно с компанией «ННК», - поясн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фи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 выстроить график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топливо сливал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ночное время. Кроме того, нужно выстроить очередность, чтобы одновременно не вставала работа всех АЗС.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해외 주류 한인 언론인, 거주국에서도 모국 사랑 이어가다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기자간담회로 네트워킹



재외동포청은 2025년도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아르헨티나 국영방송 Telefe TV 메인앵커 출신 황진이 디지털 방송사 DirecTV 호스트가 한인으로 자부심을 갖고 한류 전파에 앞장 서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재외동포청이 현지 주류 언론인으로 해당 국가에서 한국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재외동포 언론인을 초청해 국내 언론인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의 교류협력국(국장 김민철)은 13일 오전 11시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대란홀에서 재외동포 언론인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3개국 3명의 주류언론인을 초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초청된 재외동포 언론인은 미국의 LA타임스, AP 통신 등에서 근무하고 풀리처상을 수상한 강영원 포토저널리스트, 전 아르헨티나 국영방송 Telefe TV 메인앵커 출신 황진이 현 디지털 방송사 DirecTV 호스트, 그리고 현 일본 지지통신사 외신부 신기 기자 등이다.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 김민철 국장은 재외동포 초청 기자간담회가 재외동포 언론인과 국내 언론인 간에 네트워킹 기회가 되길 희망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를 통해 재외동포 언론인들과 국내 언론인들이 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했다.

첫 번째로 나온 황 호스트는 언론인이 되기 위한 첫 단계로 방송국(아나운서) 스쿨 오디션을 봤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했다. 황 호스트는 "스쿨 오디션에 60명을 뽑는데 2500명이 지원해 무척 높은 경쟁률"이었다며, "스페인어를 잘하는 원어민들이 줄을 서 있어 포기하고 돌아가려다, 다른 지원자들이 없는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한국인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오디션을 봤다"고 회상했다. 방송국 스쿨을 2등으로 졸업한 황 호스트는 (오디션을 본)선생님에게 "왜 부족한 자신을 뽑았는지" 물었을 때, 선생님이 "도전성을 봤다. 지금 방송의 시대는 퍼스널리티의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황 호스트는 생방송 중에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당하게 "한국인"이라고 대답했



강영원 포토저널리스트는 87년 한국 민수화 운동과 92년 LA 폭동 때 미국 등 영어권 국가에 한인 과 한국에 대한 역사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다.

다며, 해당 동영상을 보여줬다. 황 호스트는 현재 DirecTV의 호스트이면서 유튜브 등의 인플루언서로 남미 나라를 대상으로 한류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

2번째로 나온 신 기자는 이날 "부모님이 한국어를 못해 집에서는 일본어를 대화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양해를 구했다. 신 기자는 일제강점기에 히로시마현으로 이주를 한 조부모를 둔 재일교포 3세로 할머니가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폭 피해자라는 가족력도 소개했다. 신 기자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한국에 오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 있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기자의 길을 걸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나온 강 포토저널리스트는 "1987년 LA타임스에 있을 때 1987년 민주화 운동을 취재하러 왔다"며, "이한열 열사를 광주 망월동 모시는 사진이 1987년 7월 10일날 LA타임스 1면에 실시간으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강 포토저널리스트는 "뉴스의 얼굴은 포토저널"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뉴스를 연상할 때 이 포트를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강 포토저널리스트는 "차세대들이 뉴스를 계속 가치 있게 여기는 방법은 한번 보면 잊어버리지 못할 이미지로 뉴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포토저널리스트는 "1992년 LA 폭동사태 때 LA타임스 기자가 1100명이 넘었는데, 그 중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말을 하는 기자는 저 한 사람 밖에 없었다"며, 한인 저널리스트로 한인사회를 미국 사회를 제대로 전하는데 한 몫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총을 들고 폭도를 막는 한인들의 모습을 담은 보도사진들로 이후 헐리우드에서 동양인 남성들이 총 들고 있는 멋진 근육질의 남성으로 묘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초청된 3명의 언론인들은 기자간담회를 비롯해 16일까지 국내 주요 언론사 방문, 국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 한국 정치·사회·문화에 대한 자율 취재 활동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

[우리말로 깨닫다]

옥스퍼드 사전의 한국어 어휘

한국어를 찾으려면 한국어 사전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영어를 찾으려면 영어 사전을 찾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영어 단어 중에도 이미 한국어 사전에 실린 예도 많습니다. 영어뿐 아니라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도 한국어 사전에 외래어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들이 아이들을 부를 때 '오빠, 언니, 누나' 등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어휘에 형이 빠져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남자 아이들의 팬에 남자가 적을 수 있겠다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2025년에는 형도 사전에 등재됩니다.

셋째는 언어 변형으로 이루어진 어휘입니다. 순 한국어는 아니지만 한국을 상징하며 만들어졌거나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한류 문화 전파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의미인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팅'이 대표적입니다. K-comb, K-drama, 콩글리시 등의 어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휘를 굳이 한국어 어휘라고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한국어 어휘도 외국의 사전에 실려있는 예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전에는 거의 없었고, 지금은 많아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영어사전에 한국어는 아니지만 '코리아 타임'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여 한국인이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자주 늦다는 의미로 '코리아 타임'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는 문화적 차이도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그 후에는 김치, 태권도 등의 표현 정도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세계적 권위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이 26개의 한국어를 대거 등재하여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 한국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교, 반찬, 불고기, 치맥, 대박, 동치미, 파이팅, 갈비, 한복, 잡채, K-comb, K-드라마, 김밥, 콩글리시, 한류(Hallyu, Korean Wave), 만화, 떡방, 누나, 오빠, PC방, 삼겹살, 스킨십, 당수도, 트로트, 언니 등이 그 예입니다.

주영한국문화원은 2024년에 특별전 <26, Your Korean Words(세계 속 우리말)>을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 영국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된 26개의 한국어 단어를 주제로 영국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전시로 한국 미학을 풀어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분류하여 전시하였는데, 그 내용과 함께 언어 접촉의 측면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음식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반찬, 불고기, 치맥, 동치미, 갈비, 잡채, 김밥, 삼겹살 등'이 있는데 드라마와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치맥'의 경우는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로 한국어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앞으로 음식명이 훨씬 더 많이 세계 속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떡방'이 유행하고 있고, 드라마 속에 음식을 먹는 모습을 따라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둘째는 호칭입니다. 한국어 호칭은 다른 언어로 번역이 어렵습니다. 느낌까지 번역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따라서 호칭이 그대로 영어권 문화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호칭이 유행하게 된 원인으로는 K-pop 아이들의 팬 문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팬

셋째는 언어 변형으로 이루어진 어휘입니다. 순 한국어는 아니지만 한국을 상징하며 만들어졌거나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한류 문화 전파에 따라 만들어졌지만 새로운 의미인 경우도 있습니다. '파이팅'이 대표적입니다. K-comb, K-drama, 콩글리시 등의 어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휘를 굳이 한국어 어휘라고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넷째는 고유문화에 관한 어휘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고유문화라기보다는 한국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어라는 축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화 요소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한류, 한복, 만화, PC방, 트로트, 당수도, 대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복, 당수도'는 고유한 전통문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화나 트로트는 한국에서 달라졌거나 유행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애니메이션을 대신하여 '만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는 한국 웹툰의 유행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드라마 중에 웹툰이 원작인 게 많을 정도로 한국 웹툰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트로트도 일본의 엔카와 관련이 있었지만, 한국의 트로트는 한국적인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박은 사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감탄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달고나, 노래방, 형, 막내, 찌개, 떡볶이, 판소리 등 7개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찌개, 떡볶이, 달고나 등 음식이 추가되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이 추가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한국에서도 복잡한 어휘입니다. 여성 간에도 형님이라는 호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막내라는 표현도 단순히 동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직에서 가장 어리거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요한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 의미가 알려지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소리, 노래방과 같은 한국적인 문화 어휘도 추가되었습니다.

세계 속으로 한국어 어휘는 더 널리 퍼지겠죠. 드라마, 영화, 노래의 유행과 함께 한국 음식, 뷰티 등도 널리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행은 언어의 접촉을 이루고, 접촉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왕이면 좋은 한국어 어휘가 외국의 사전 속에 등재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아름답다 등등.

(출처: 재외동포신문)

В Южной Корее вспомнили о российском следе в успехах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странице 5)
Москва - незримый архитектор "K-Defense"

Бывший дипломат прямо заявляет: роль России в становлении корейского ВПК недооценена. США, несмотря на десятилетия союзн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едпочитали поставлять готовое оружие без технологий, тогда как Москва в 1990-2000-х делилась ключевы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По его словам, "вклад России был двойным":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 передача ноу-хау, без которых невозможно было бы создать ряд систем; рыночный - после начала войны на Украине спрос на корейское оружие резко вырос в Европе и на Ближнем Востоке, где "российский фактор" стал своеобразной рекламной эффективностью "K-Defense".

Приводятся примеры: Польша, Румыния и Саудовская Аравия массово закупает корейское оружие, а иностранные СМИ иронизируют, что "Россия доказала боеспособность корейских систем, сама того не желая".

Инерция мышления эпохи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и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ереоценки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й части автор рассуждает, что в Южной Корее до сих пор сильны стереотипы времен холодной войны. Россия, по его мнению, давно перестала быть идеологическим противником, и настало

время рассматривать ее как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 научного партнера,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растуще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перничества.

Он призывает освободиться от догматизма и объективно признать вклад Москвы в развитие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боронной и космической мощи - не в качестве оправдания, а ради трезвого понимания исторических взаимосвязей.

Справка "РГ"

Пак Пен Хван - бывший кадровый дипломат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эксперт по России, всю свою карьеру занимался РФ и странами СНГ, проработал долгое время на ответственных должностях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Окончил юридический факультет университета Корё (Сеул), учился также в Оксфорд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Среди основных назначений - советник-посланник в посольстве РК в Москве, Ташкенте,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К в Иркутск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возгл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евразий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иглашенный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Санмён (Сеул), активно комментирует для местных СМИ ситуацию вокруг России и стран бывшего СССР.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31 октября 2025 г.)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주에서는 올해 이용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의 노년층이 특히 신경망(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있다. 사할린의 55세 이상 이용자들은 인공지능과의 소통 빈도가 5배 증가했다. 실제로, 아무르주에서는 이용자 수가 11배, 옐리자베허주에서는 15배, 라잔주와 카라차예워-체르케시아에서는 9배 증가했다.

성장 속도 2위 그룹은 25세에서 34세 사이 이용자로, 1년 전보다 4배 증가했다.

사할린 주민들은 신경망(인공지능) 작업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인공지능 서비스 트래픽은 2024년 동기 9개월 대비 4배 증가했다. 특히 여름에 이용자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활발했는데, 해당 플랫폼 전체 트래픽의 80% 이상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다.

인공지능 이용자의 주요 부분(방문자 67%)은 여전히 25세에서 44세 사이 연령대가 차지하며, 이 중 대다수는 남성(약 70%)이다.

가장 인기 있는 도구는 여전히 ChatGPT다. 2위는 GigaChat, 3위는 Qwen이다. 또한 동영상 생성용 신경망(인공지능) 편집기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해 해당 트래픽이 거의 8배 늘었다. 반면, 러시아인들은 음악 생성용 인공지능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해당 자원에 대한 트래픽은 87% 감소했다.

인공지능 이용자는 여전히 모스크바, 모스크바주,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신경망(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다게스탄, 체첸, 남오세티야, 네네츠크 자치구, 마가단주, 칼미키야에서 기록됐다.

На Сахалине нейросети особенно интересны пользователям старше 55 лет

Нейросети перестают бы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игрушкой молодежи» и активно входят в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широкого круга россиян.

Так, интерес к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резко вырос среди людей старше 55 лет. Согласно исследованию МегаФона, основанному на обезличенных данных, за девять месяцев 2025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увеличилось в 4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предыдущего года.

Специалисты оператора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интернет-трафик на популярные нейросети, доступные как через браузер, так и через мобильные приложения. Общее число пользователей, которые применяют ИИ в быту или работе, с января по сентябрь 2025 года выросло на 110%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2024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текущем году у абонентов интерес к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увеличился почти в три раза.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в регионах особенно активно осваивает нейросети. Сахалинские абоненты 55+ стали общаться с ИИ в 5 раз чаще. Например,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число таки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ыросло в 11 раз, в Оренбургской — в 15 раз, а в Ряз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ии — в 9 раз.

Второй по темпу роста группой стали пользователи от 25 до 34 лет — их в 4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Сахалинцы стали больше расходовать мобильный интернет на работу с нейросетями: трафик на ИИ-сервисы вырос в 4 раза относительно 9 месяцев 2024 года. Особенно активно пользователи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искусственным интеллектом летом — более 80% всего объема трафика на такие площадки пришлось на июнь-август.

Основную часть аудитории (67% посетителей) ИИ по-прежнему составляют люди от 25 до 44 лет, при этом большинство из них — мужчины (около 70%).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инструментом остается ChatGPT.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 Giga.chat, а замыкает тройку лидеров Qwen. Также кратно вырос интерес к нейроредакторам для создания видео — трафик на них увеличился почти в 8 раз. В то же время россияне стали

заметно реже использовать ИИ для генерации музыки: трафик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ресурсы упал на 87%.

Больше всего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И по-прежнему сосредоточено в Москве,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днако самые высокие темпы роста интереса к нейросетям зафиксированы в Дагестане, Чечне, Южной Осетии, Ненецком автономном округе,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Калмыкии.

전문가 권고, 가짜 새해 여행상품 사기 주의

사기꾼들이 유명 여행 사이트 및 여행사 웹사이트를 복제해 저가의 존재하지 않는 새해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러시아 법포가 협회 회원 나탈리아 글레보와가 밝혔다고 노위스피 러시아 통신사가 보도했다.

글레보와는 사기의 희생자가 되어 돈과 휴가를 모두 잃는 일을 막기 위해 몇 가지 권고를 했다: 계약 조건과 회사 웹사이트를 연구하고, 도메인 등록 날짜에 주의하라; 매력적인 광고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로 이동하지 말라; 특별 등록부를 통해 여행을 확인하라.

해당 전문가는 만약 이미 사기의 희생자가 되었다면 즉시 경찰에 연락할 것을 촉구했다.

Мошенники начали продавать фейковые новогодние туры

Мошенники создают копии сайтов известных агрегаторов и туроператоров с несуществующими новогодними турами по низким ценам. О новой схеме злоумышленников рассказала член Ассоциации юристов России Наталья Глебова, пишет РИА «Новости».

Глебова дала несколько рекомендаций, как не стать жертвой аферистов и не остаться без денег и отдыха: изучите условия договора и сайт фирмы, обратив внимание на дату регистрации домена; не переходите по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рекламе на неизвестных сайтах; проверьте турагентство при помощи специального реестра.

Эксперт также призвала сразу же обращаться в полицию, если вы все-таки стали жертвой обмана.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26 год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полугодие — 885 руб. 9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l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